

오피니언

월/요/광/장

민혜숙



요즘처럼 '소통'이라는 말이 자주 쓰인 일이 없는 것 같다. 어쨌든 '소통'은 2008 년도의 유행어가 될 것 같다. 하지만, 소통 이라는 말의 범주는 넓으니까 대화의 소통, 그것도 가족이나 친지 사이의 소통이라고 범위를 좁혀 보자. 과연 우리는 가족, 부부, 친구간에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다른 아닌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우스개가 생겼다. 물론 '엄마 친구 딸'도 많은 딸의 가상의 적이 됐다. 자녀에게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부탁하기보다 친구의 아들이나 딸을 빗대어서 은연중 암시하는 것이 더 불쾌하다는 뜻이다.

직접, 솔직히, 그러나 부드럽게

수 있다.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면 역이용 당하지 않을까, 놀림감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지만, 가까운 사이라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자존심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면 말이다.

김민숙의 '개고기남일'이라는 소설에는 이혼하기 위해 법원 앞에서 만나기로 한 부부가 등장한다. 별거중인 남편은 전남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서류'를 잘 챙겨오라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다. 아내 역시 남편의 마음을 짐작하는 바이지만 모

른 척 "걱정 말라"고 쌀쌀하게 응수한다. 그 다음날 법원 앞에서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것을 목격한 아내는 자기도 모르게 "안돼"라고 외친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혼녀가 되고 싶었지, 미망인이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니야."라고 말한다.

끝까지 솔직하지 못하다. 남편이 구실을 붙여 전화를 했을 때는 아내가 잡아주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알뜰한 자존심이 끝내 본심을 말하지 못하게 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번쯤 저주자,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비록 창피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간혹 직접, 솔직하게 말하는 경우도 있

사람을 '외나무다리에서 원수를 만나듯이' 대면해야 하는 일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어떤 사안을 직접, 솔직하게 말해야 할 때 나도 모르게 호흡이 가빠지고 맥박이 빨라진다. 그래서 부드럽게 말하는 지혜와 훈련이 필요하다. 감정을 최대한 억제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살피면서 나중에 미안해 하거나 후회할만한 거친 표현을 삼가야 한다. 도를 넘거나, 선을 넘으면 관계는 금이 가고 깨어질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극도로 화가 나면 물을 마신다고 한다. 입에 물을 물고 있다 보면 말을 절제하게 되고, 그 순간이 지나면 극단적인 표현을 피하게 된다고 한다.

지금 우리 국민은 여러 가지 일로 화가나 있다. 국정문제도 그렇지만, 끝없이 오르기만 하는 유가 때문에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주변에는 감기 걸리듯 암환자가 늘어나고, 사고당한 사람들도 많다. '울고 싶은 데 뺨을 때려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화를 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럴 때일수록 삶의 지혜를 모으고, 부드럽고 솔직하고 유언한 말을 함으로써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힘과 위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소설가·호남신학대 겸임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유 요구 수용하라

전남과 전북, 경기, 인천, 충남 등 황해권 5개 시·도지사들이 지난 27일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국제공항 경유를 정부에 촉구했다. 무안공항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황해권 시·도지사들이 호남고속철의 무안공항 경유가 황해권이 동북아 경제 중심으로도 약화하는데 필수요건임에 공감대를 보인 것으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시·도지사들은 황해권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국제공항 경유 등 황해권을 아우르는 사회간접자본(SOC)을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근접해 있는 황해권의 개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황해권은 그동안 경기, 인천 등 북부 지역과 전남, 전북, 충남 등 남부지역 간

의 불균형이 심해 국토균형발전의 걸림돌이 돼 왔다. 따라서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는 황해권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황해권 시·도지사들도 바로 이 점을 강조한 것이다.

호남고속철도가 무안공항을 경유하도록 노선을 변경할 경우 총 길이는 17km, 사업비는 7천억원 가량 더 늘어난다. 하지만, 황해권의 수송능력 증대와 물류비용 감소, 황해권과 중국과의 교류증대 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및 국가균형발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엄청나다. 특히 황해권의 이동성과 접근성이 더욱 강화돼 해양과 내륙, 산업이 어우러진 다기능 레저 관광 및 휴양 시설 조성이 가능하게 돼 중국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국가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황해권 시·도지사들의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결단을 기대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 서민 허리 된다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마침내 연 9%대를 넘어섰다. 변동금리형 주택대출 금리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서민 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가뜩이나 고유가와 고물가로 신용하는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은행의 지난 주 초 주택대출 고정금리는 연 7.55~9.05%로 최고 금리가 9%를 돌파했다. 국민은행 금리도 연 7.14~8.64%로 대출금리 체계를 변경한 2005년 4월에 비해 최고 금리가 2.30%포인트나 상승했다. 고정금리로 1억원을 빌린 대출자의 경우 금리가 2.30%포인트 상승하면 연간 이자부담은 230만원이나 늘어나게 된다.

양도성에금증서(CD) 금리에 연동하는 변동금리형 주택대출의 금리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은행 등 주요 은행의 3개월 변동형 주택대출 금리는 0.01%포인트 높아졌다. 주택담보 대출자 가운데 90% 가량이 변동금리형에 가입

하고 있어 변동금리의 상승은 고스란히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지금보다 2~3배 이상 증가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등으로 금리가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인란 점이다. 또한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정부로서도 어려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 유가 상승, 고물가 등 국내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는 한 금리는 장기적으로 계속 오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 1인당 가계부채가 1천563만원에 이르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마저 오르면 가계부채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업은 기업대로, 가계는 가계대로 버틸거리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서민가계 안정에 힘써야 한다. 치솟는 물가와 금리로 가중되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를 뒤야 할 것이다.

無等鼓

권력을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자들은 여론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근대 민주주의의 여명기를 살았던 루소는 "여론이 야말로 세계 최고의 여왕이며 그것은 국왕의 권력에도 복종하지 않는다. 국왕은 바로 이 여왕에게 직접 시종을 들어야 하는 노예이다"고 말했다.

정치인에게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일은 생뿔줄과 같다. 여론의 흐름을 정확히 한다는 것은 정치 승부의 승패를 좌우한다. 여론조사는 이런 정치적 의미에서 탄생했다. 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여론조사의 활동도는 더 높아진다. 그러나 정확한 여론조사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프랑스에 여론조사 가 도입된 1960년대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는 모든 사람이 의견을 갖고 있고, 모든 의견이 똑같은 무게를 갖고 있고, 질문의 가치에 대한 동등이 있다는 3가지 전제 아래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한 뒤, "(그런 전제를 갖춘) 여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했다. 미국

의 좌파 언론인 허버트 실러는 "여론조사는 현상 유지를 위한 매춘"이라고 극언했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에도 한국에서는 여론조사가 만능 역할을 하고 있다. 당원들의 묶인 정당 선거후보 선출을 여론조사가 대행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당당지를 포기한 알파한 포퓰리즘이, 인기가요 선정 방식의 '정치 문맹'

행태로 비판받지만 광활도와 위력만은 광범위하다.

촛불집회로 추락했던 이명박 정부 지지도가 최근 미세하지만 상승곡선에 접어들었다. 그래서일까, 정부가 그동안의 수세에서 벗어나 촛불집회 강경진압 등 공세 체제가

전환했다. 여론의 추이에 따른 변화다. 그러나 여론은 상황에 따라 또 다시 변할 수 있다.

'여론조사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갤럽은 이런 말을 남겼다. "여론조사는 그 어떤 의미로든 예언이 될 수 없다. 단지 스냅 사진일 뿐이다."

/오주승 사회1부장 jsoh@kwangju.co.kr

여론조사



법조 칼럼

김평호



요즘 언론, 인터넷 등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단어는 '촛불'이다. '초에 붙은 불'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촛불'이란 단어의 가장 소박한 이미지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소망, 희망을 기원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 모두는 마음 속에 소망이나 희망을 담은 촛불을 항상 간직하며 살고 있고 나 역시 마찬가지다. 나의 '개인적'인 삶에 가장 크게 타오르는 마음 속의 촛불은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가족의 건강과 평안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촛불이 스러져버린다면 삶의 의미가 반감되어 버릴지도 모르겠다. 나의 '직업적'인 삶에 가장 크게 타오르는 촛불은 '권선징악'과 '억울한 피해

오자 두 사람 모두 음주운전으로 기소했다. 선배는 수개월간 형사재판에 출석해 억울함을 호소했고, 후배는 법정에서 선배가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고자질한 것에 화가 나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고 사실은 선배가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선배는 음주운전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다.

만약 후배가 계속하여 거짓 진술을 유지하였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후배의 거짓 진술로 인해 범죄 혐의를 받게 된 선배가 수개월간 수사기관의 조사 및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겪게 된 피해에 대한 책임은 수사기관에만 있는 것일까?

내 마음 속의 촛불

자의 눈물과 고통을 싸매주고 억울한 피해자 없도록 하고자 하는 소망"이다. 검사가 실제적 진실을 모두 밝힐 수 있으면 좋겠지만 수사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 듯하다. 특히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상반되고 그 외 다른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에 실제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검사는 고뇌할 수밖에 없다.

예전에 내가 재판에 관여했던 형사사건 중 하나를 소개한다. 그 사안을 요약하면 '회사 동료가 술을 마시던 중 선배가 후배 여자친구를 협박한 것이 시비가 되어 후배가 선배를 때렸다. 사건 현장에 경찰관이 오자 화가 난 선배는 후배가 술까지 음주운전 사실을 말했다고, 후배는 선배도 음주운전하였다고 말했다. 물론 선배는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수사검사는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어 심리생리검사(속칭 '거짓말탐지기')를 한 결과 후배의 말은 진실, 선배의 말은 거짓으로 나

형사 절차에 있어서 참고인에 대한 수사는 이후 기소 및 공판절차에 있어서 증거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참고인의 출석과 진술 자체가 그의 임의에 맡겨져 있으며 이들에게 진술을 강제하거나 진술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실제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사기관에 출석한 참고인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려고 할 뿐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하다면 서슴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처벌할만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 허위진술 죄 등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입법화되지 못하여 매우 아쉽다.

그래서 소망해 본다. 수사기관에서의 거짓말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있으면 하는 내 마음속의 촛불이 나만의 촛불이 아닌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켜진 촛불이기를...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기고

박형철



결혼 초, 그것도 첫 애를 순산하고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는 상황이 있다. 깨물어도 아프지 않을 신생아가 낫아 찬 바람을 쐬고 와 초자녀부터 보채기 시작하더니, 자정이 넘어서 열이 팔팔 끓는다. 37.5도, 38도, 39도... 엄마 손채 온계로 만져보니 40도는 겨뽀니 넘어감에 틀림없다. 아빠 깨우고, 할머니, 할매까지. 엄마는 아빠에게 화살을 쏜다.

'어디로 가지? 00대학병원 응급실. 가면 뒤 검사, 엑스레이 등 절차 복잡하니 우리에 고생할 거구. 최선 아니다. 또 사신 넘나드는 환자 넘쳐나는데 대학 병원에서 이런 신생아에 관심을 기울여 줄 리 없다. 동네 소아과는 이미 문을 닫았다. 평소 어디 발당을 보아도 한 두 개

한 서비스를 받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투자하는 것, 소프트웨어에 더 많은 관심을 주장한다. 계층간, 지역간 불균형을 조정하고 하드웨어 뿐만 아닌 건강 프로그램에도 더 많은 투자가 요청된다. 풍요 속에 빈곤을 겪게 하면 안된다. 의료기관 신·증설도 중요하지만 수의 공급이 충분히 예측되어야 한다. 의료시설 공급위주의 정책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설 수용을 유도하고 엄청난 재정부담을 초래한다.

지역사회 건강프로그램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가능한 건강은 병원에서서 이런 신생아에 관심을 기울여 줄 리 없다. 동네 소아과는 이미 문을 닫았다. 평소 어디 발당을 보아도 한 두 개

광주·전남 건강도시 조성을 환영하며

이상 병원이 보이던데, 막상 이용하려 하니 막막했던 것이다. 무의촌은 없다지만 농어촌 상황도 불만이다.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정부 대책을 보면 어김없이 노인요양병원이나 실버단지 조성이 감춘다. 응급대책을 내놓으려면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설치나 전부이다. 언제, 어디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지는 언급이 없다.

일부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친절 등은 향상되었다 해도 시민들의 건강수준이 올라갔느냐는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 다. 투자 대 수익(건강 향상)을 제1의 기준으로 삼는 경제정책 책임자도 효율이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자신이 없어한다.

무엇이 문제일까? 일찍이 보건학자 블람 등은 인간의 건강 향상 주요인으로 생물학적 요인, 환경과 생활습관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조직 체계'를 들고 있다. 주민들이 필요한 때에,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적절

소프트웨어가 적절히 배합되어야 한다. 보건교육에 힘써야 하고, 건강이나 의료기관 이용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보건의료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오늘 날 발달한 현대의료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아시아문화전당처럼 총체적 설계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야 한다. 질병치료만이 아닌 예방과 재활을 포함하는 건강이어야 한다. 오늘만이 아닌 미래를 위한 구상이어야 한다. 시민들은 지역사회 건강조직을 만들어 적극 참여해야 한다. 보건직들은 예술이다.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참여예술인 것이다.

뒤늦게나마 광주·전남 선도 자치단체들이 세계보건기구가 구상하는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참여키로 했다. 바람직한 출발이다. 축하드린다. 건강도시라는 의령이 아닌 실질적 건강도시로 커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국립소록도병원장>

살인 부른 가정폭력... 직장·단체 예방교육 의무화를

얼마전 이웃집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 얼마나 심하게 싸우는지 온 동네가 떠나갈듯 남자의 고함소리가 들렸고 부인인 듯한 여자의 비명소리가 났다. 보다 못해 이웃집 주민이 경탄을 신고했다.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여자의 비명소리를 들으니 남편의 폭행이 있는 듯했고 자칫하면 무슨 사고라도 날 것같은 우려 때문이었다.

얼마후 경찰관이 도착했는데 자칫하면 큰 사고가 날 뻔 했다. 그 집 남편이 다 함께 죽

자며 가스밸브를 열고 위협했다는 것이다. 순간의 흥분을 참지 못하고 일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됐을까.

가정은 지상의 천국이라고 했다. 그런 가정에서 '육'하는 마음에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살인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육'하는 성질 대신 '육' 참는 자세로 가정을 지키자. 그리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듯이 직장이나 각종 단체에서 가정폭력 예방 교육의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하면 된다. ▲김기봉·광주시 서구 광천동

집밖에 둔 쓰레기 뒤엎고 관공뽕투 흠쳐가는 세대

아무리 쓰레기 종량제를 해도 가정용 쓰레기 양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나 요즘같이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이면 각종 과일 껍질부터 쉽게 상한 음식물까지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은 겨울철보다 배가 늘어난다.

여름철 쓰레기봉투가 다 찰 때까지 집안에 두면 악취가 심하게 난다. 이 때문에 집 앞 관에 쓰레기봉투를 두는 사람들이 많다.

며칠 전 밤이 깊은 시각에 아파트 밖에서 무척이나 실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하면 된다. ▲김기봉·광주시 서구 광천동

앞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누군가 쓰레기를 그곳에 버리고 봉투만 가지고 가 버린 것이다. 다시 새 쓰레기봉투를 꺼내 주위 담았지만 쓰레기봉투까지 노리는 암척이들이 있다고 생각하니 허탈했다.

만약 주택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쓰레기 봉투가 봉투봉투로 오해를 받았을 것이다. 아무리 각박하다지만 신랄한 시민들을 오물투기범으로 몰게 되는 쓰레기봉투 절도 행위는 사라졌으면 한다.

▲문성희·목포시 추후동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이메일부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처 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 처 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F A X 227-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02-773-9335>
사회2부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